

山东大学

二〇一七年招收攻读硕士学位研究生入学考试试题

科目代码 216 科目名称 翻译硕士朝鲜语

(请将所有试题答案写在答题纸上, 写在试题上无效)

1.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10=10 점)

- 1) 취미 생활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
A. 결국 B. 반드시 C. 오히려 D. 거꾸로
- 2) 가: 첫 월급을 탔으니까 근사한 데 가서 한턱 내는 게 어때?
나: 첫 월급을 탔다고 ()로 작정을 했니?
A 바가지를 긁기 B 바가지를 씌우기 C 바가지를 쓰기 D 바가지를 차기
- 3)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때론 ()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A. 달갑게 B. 어느덧 C. 구차하게 D. 자못
- 4) 비교적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기성 세대는 그들 ()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과 예절이 있다.
A. 알뜰하게 B. 혹시 C. 나름대로 D. 가령
- 5) 그들은 시냇물을 따라 산골짜기 () 곳으로 들어갔다.
A. 높은 B. 낮은 C. 깊숙한 D. 얕은
- 6) 저쪽에서 농악 놀이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 어울려 봅시다.

A. 한창 B. 한참 C. 한숨 D. 한판

- 7) 한국의 고려청자 비법이나 수저 쓰는 법 등에 대해서 외국인이 쓴 자료가 더 많다. 그래서 한국사람의 조상들의 일상 생활을 알 수 있는 관련 기록은 () 찾기가 쉽지 않다.
A. 모처럼 B. 좀처럼 C. 간신히 D. 단단히
- 8) 땅으로 내려온 뒤 환웅은 백성들에게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 아/어 주고 그들이 이것들을 빨리 익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A. 깨우다 B. 터득하다 C. 깨우치다 D. 깨다
- 9) 공장 주인이야 그 기계 소리가 즐겁게 들릴지 몰라도, 인근 주민들은 미칠 ()이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A. 처지 B. 노릇 C. 지경 D. 정도
- 10) 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유리나 사기를 ()아/어 만든 가루를 연실에 바르기도 한다.
A. 쪼개다 B. 넣다 C. 담다 D. 뺀다

2.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10=10 점)

- 1) 대기 오염은 어느 새 우리의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뺏앗아 갔다. 언제나 시뻘연하늘은 우리에게 ()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마저 그치게 했다.
A. 우울감을 주고 B. 우울감을 받고 C. 우울감을 느끼고 D. 우울감을 가지고
- 2) 그 분의 강의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 강의 내용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A. 잘 이해하겠지만 B. 잘 모르겠지만 C. 잘 알겠지만 D. 잘 하겠지만
- 3) 가: 오늘 첫 월급을 () 제가 한턱 낼게요.

나: 아이구!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뭘 한다구? 내가 밥을 사지.

- A. 받겠지만 B. 받았지만 C. 받았으니까 D. 받는 데도

4) 너희들은 소원 성취하고 복 많이 받아라. 금년은 소의 해니 () 무슨 일이나 소처럼 성실히 하거라.

- A. 꺾 있게 B. 꺾부리지 않는다면 C. 꺾부리지 않고 D. 꺾부리지 말고

5) 가: 가을이 되니까 왜 이렇게 식욕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 A. 식욕이 좋은지 B. 식욕이 없는지 C. 식욕을 살리는지 D. 식욕을 자극하는지

6) 힘든 공부 끝에 시험에 () 가슴이 뿌듯해진다.

- A. 합격하지만 B. 합격했지만 C. 합격해도 D. 합격하고 보니

7) 우리 고향은 물난리는 가끔 나도 지진이나 태풍이 () 천만다행이다.

- A. 심하니까 B. 심하지 않아서 C. 심했으므로 D. 심하지만

8) 가: 한국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달 배웠는데 아직도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나: 이제 첫 학기인데,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차츰 ().

- A. 좋을 거예요 B. 나아질 거예요 C. 나아질 거예요 D. 증가할 거예요

9) 가: 아버지는 유명한 스키 선수였는데 아들은 스케이트 선수로 유명해요.

나: 그래서 부전자전().

- A. 이 아니예요 B. 이라지 않아요 C. 이 말이에요 D. 아닌가 봐요

10)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나 책임을 () 최선을 다하겠다.

- A. 맡았다시피 B. 맡았더라도 C. 맡았든지 D. 맡았으니

3.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속담을 뜻 풀이하십시오. (5×2=10 점)

1) 가: 저쪽 노장선수들이 서서히 실력을 발휘하니까 꺾 못하고 졌어요.

나: 그래요? 우리편 선수들이 젊어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몰랐군요.

뜻 풀이:

2) 가: 연주할 수가 있나요. 그 동안 배운 민요 몇 곡을 연습해 보는 정도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지 않아요? 사실은 부산에 계시는 박 선생님이 전화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뜻 풀이:

3) 가: 진홍 씨가 요즘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 그래요? 진홍 씨 좀 만나야겠는데 언제 들어와요?

가: 곧 들어올 거예요. 아, 저기 오네요.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딱 그렇네요.

뜻 풀이:

4) 가: 요즘 왕호가 게임에 푹 빠져 있어요.

나: 성준 씨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사돈 남 말하지 말고 성준 씨나 잘 하세요.

뜻 풀이:

5) 가: 그 사람 이번에도 면접시험에 탈락할 거예요.

나: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 마세요.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해요.

뜻 풀이:

문제[3]: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8 점)

오늘날 지구의 한 쪽에서는 1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허덕이며 해마다 5천만 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세계화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이와) 반해(①) 다른 한 쪽에서는 부나 정보의 창출과 향락을 위해 매년 수천 억 불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화, 그러나 21 세기는 한 국가 한 민족에만 국한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이건 그것은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 전체의 문제로서 각 국가나 민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에서의 식량 부족과 기아(②) 현상이 아프리카만의 문제일 수 없고 일본의 경제 불황(③)이/가 일본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각 국가나 민족이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인류는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를 되풀이 할(④) 수밖에 없다.

질문:

1) 밑줄을 그은 단어들에 대신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십시오.(4 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2)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대답하십시오.(4 점)

문제[4]: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10 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거칠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들은 거칠다기보다 수줍음이 많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정도 많고 사랑도 많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어 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시청각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비디오를 보여 주셨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랑 이야기였다. 아내가 챙겨 준 도시락 속에서 두콩으로 만든 하트 모양을 보고 남자가 씩스러워 하며 감추려는 장면, 손님들이 간 후에 아내한테 '사랑해'하고 창문에다 써 주는 장면을 보고 한국 사람이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수

줍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 속의 한국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창문에 쓰지도 못할 것 같다. 한국에 와서 경상도 출신인 지도 교수님께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남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한국 남자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경상도 남자가 집에 가면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세 마디밖에 없다고 한다. "아는? 밥 독자. 자자."

한국 사람은 친척들 간의 가까운 정도를 '촌'으로 표시한다. 전에 한국어 선생님이 부부 간의 사이가 '0촌'이라고 했다. 하지만 '0촌'인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와 직접 상관 없다는 식으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둘러서 말한다. 중국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말할 때, '내 愛人'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밖에서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 '우리 집사람',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을 쓴다.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이 지갑 속에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숨겨 놓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수줍어서 사랑 예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을 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나 같은 외국인들은 정말 놀란 수밖에 없다. '자식, 새끼,놈.....' TV 에서 강패들이 싸울 때에 하는 욕을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친한 호칭으로 쓰기도 하지만 욕인지 애칭인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다. 예를 들어, '원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꼭 칼을 들고 죽일 정도로 미운 사람은 아니다. 우리 연구소 언니가 자기 남자 친구를 보고 '원수'라고 할 때 표현할 때 표정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다. 어떤 아빠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보면서 '이 자식'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새끼'라고 한다. 친한 친구라면 어깨를 툭 치고 나오는 말이 '임마,' 다.

한국인의 수줍음은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짐이 너무 많았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큰 짐을 두 개나 들고 있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짐 하나가 옆의 할아버지의 손에 들렸다.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무 표정이 없이 머리만 끄덕이고 가셨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나 하고 학교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질문:

- 1) 이 글에 적합한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2 점)
- 2) 이 글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한 예를 찾아 쓰십시오. (6 점)
3.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 남자들의 성격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2 점)

5. 작문(30점)

중국문학이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중·한 양국의 문화 교류가 양국의 문학·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십시오. (600자 좌우)